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여름 공동체생활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목) 오후 6시 저녁공동식사로 시작합니다.
8월 1일(토) 오후 시간은 어울림 방 시간입니다.
8월 2일(일) 예배 중에 성찬식과 물질의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조향민 · 최신혜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박예영 집사 (생일 감사)

신헌(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4 - 30 호

2026년 7월 2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함께 식사합시다

청일점 서병욱 집사님을 위시해서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교육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여름 공동체생활을 준비 중이다.

여러 할 일 중에 내가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3일 동안의 아침식사이다. 이번 여름 공동체생활 아침식사도 2024년, 2025년에 이어 교육공동체 식구들이 준비하기로 했다.

이참에 올해 아침식사 메뉴를 소개하자면

빵, 잼, 크림치즈스프레드, 감자스프, 크램차우더스프, 달걀, 양배추당근라페,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바나나, 커피, 우유, 주스

3일 동안 나올 음식을 다 모아 적어봤는데 매일 아침식사에 참여한다면 모두 맛 볼 수 있다!

아침식사를 간편식으로 알렸지만 사실 준비가 간편한 것은 아니다.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고 다듬고 만들고 차리고 치우기까지 할 일이 많다.

그래도 “소 한 마리 잡읍시다!”하면 “엎!”하고 나설 것 같은 여장부들이 함께 하니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준비할 때 큰 힘이 되는 밑천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년 동안 아침식사 서빙을 하며 엮은 식구들의 행복한 모습이다.

“월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해진미도 아닌데 정말 맛있게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이 차올랐었다. 올해도 맛은 보장할 수 없지만 정성만은 듬뿍 담아서 준비할 작정이다.

한 해의 중간 아름답게 활짝 꽃피울 여름 공동체생활을 기대하며!

그루터기사랑방 전향옥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272장, 322장

성 경 : 역대기하 33장 9-16절

말 씀 : 징벌을 통해 교육하시는 하나님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동의 평화를 위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종전 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충돌은 계속되었고 미국의 참여하에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더 큰 유혈이 번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선교 활동을 위해>

러시아나 중동 등 평화롭지 않은 곳이나, 드러낼 수 없는 곳이나, 열악한 환경이나 인력부족임에도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주시길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

1) 여름 공동체생활을 위해

2) 폭염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도록

3) 지체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하루 한끼 점심시간에 함께 공동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미뤄두었던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관 증축 공사가 재개되었고, 장마에 부쩍 자란 풀들을 베어주었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여름 공동체 준비를 위해 곳곳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애를 쓰는 중입니다. 곧 다가올 여름 공동체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장영미 전도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대안학교의 뿌리를 찾아서 ①
한국 최초의 대안학교 '꾸러기학교'
한국 현대 교육사에서 최초의 대안학교는 어디인가?

한국에서 대안교육을 논하는 사람들은 대안학교의 시작을 1921년 영국의 교육자 A. S. 닐(Alexander Sutherland Neill)이 설립한 서머힐 학교(Summerhill School)로 보는 것이 정설처럼 굳어있는데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 서머힐 학교가 대안학교의 시작인지 설명이 분명하지 않다

서머힐 학교 이전에 세워진 학교들이 곳곳에 많다. 덴마크에 니콜라이 그룬트비 목사 (1783-1872)의 영향을 받아 세운 학교가 있고, 세계 곳곳에 오래전부터 대안교육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에서도 대안교육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경당과 조선 시대의 서당이 대안학교 범주에 속할 것이다. 이른바 '학교' 형태를 갖추고 시작된 곳은 아펜셀러 선교사가 세운 배재학당(1885년 설립)과 1886년 미국인 감리회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이 설립한 이화학당(1886년 설립)이 대안학교이다.

서머힐 학교를 대안학교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대안학교의 시작을 1997년 3월 경상남도 산청 지리산에 설립된 간디학교로 본다. (왜, 간디학교를 대안학교의 시작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깊게 논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 현대 교육사에서 대안학교의 시작은 1958년 4월 23일 문을 연 '풀무고등공민학교'로 봐야 한다. 설립자 이찬갑 선생은 오산학교 출신으로 '교육, 기독교, 농촌'에 의한 민족구원의 뜻으로 시작된 국가 주도의 교육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율적 교육 운동이라는 점은 훗날 대안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

하다. 그러나 그해 9월 2일 '풀무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고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주로 비제도권 교육을 논하는 대안학교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최초의 대안학교 꾸러기학교"

이후 1992년 4월 6일 사랑방공동체가 5세~7세의 유아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 꾸러기 학교를 설립했다. 이는 산청 간디학교보다 5년이 앞서는 현대 교육사에서 최초로 설립된 대안학교이다

꾸러기학교와 관련된 내용은 이는 2007년 교육부가 발간한 '대안교육 백서(37쪽)'와 사랑방공동체(정태일 목사)의 역사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다. 꾸러기학교는 다섯 살부터 일곱 살까지 유아 과정의 교육 공동체로 12명 아이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장화 신고 국회 가요』(이월영, 2000. 기독교신문사)에 잘 나타나 있다.

꾸러기학교는 2002년 초등과정 대안학교 '어린이학교'와 중·고등 통합과정인 '멋쟁이학교'를 개교하는 밑받침이 되었다. 어린이학교는 최초의 초등대안학교인 2001년에 개교한 '산어린이학교'보다 1년 늦게 시작하였지만 역시 한국 대안교육 운동의 선두주자임에 틀림이 없다.

사랑방공동체는 한국의 공동체 운동과 대안교육에 기독교와 비기독교 진영을 넘어서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런데도 대안교육 운동사에서 평가는 아주 미미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대안교육과 연관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기독교계의 대안학교 운동사를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방공동체 학교에 대한 공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영희 기자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여름 공동체생활을 기대하며

사랑방공동체 식구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생소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름 공동체생활은 제게 가장 색다르고 특별한 수련회였습니다.

찬양집회와 통성기도 중심의 수련회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사랑방의 여름 공동체생활은 말 그대로 공동체생활에 맞춰져 있는 지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연령대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꾸러기들이 자주 부르던 찬양이 나오면 꾸러기들이 방방 뛰며 더 큰 목소리와 울동으로 찬양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꾸러기부터 푸른꿈들과 무림방 어르신들 까지 한 목소리와 몸짓으로 드리는 찬양은 진정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삶 나의 일’을 통해 지체들의 삶의 나눔을 들으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멀리 선교지에 계시다가 여름 공동체생활에 함께하게 된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을 때는 정말 큰 감동에 울컥 울컥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녁 코이노니아 시간은 개인의 신앙수련에 초점되어 부르짖는 기도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코이노니아의 시간으로 말씀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진심을 담아 기도해주는 깊은 사귄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몰랐던 사정들, 속마음, 고민들을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혹은 손을 얹어 기도하는 시간은 함께한다는 것이 물리적인 것을 뛰어 넘는 더 높은 차원의 경험인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식사 또한 달랐는데, 단순히 업체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닌 각 방의 지체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선교와 섬김

사랑과 진정한 섬김이 느껴지는 식사였습니다.

특히 몇 해 전부터 교육공동체 위원들께서 준비해 주시는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을 환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는 값진 식사였습니다. 이번 공동체생활에도 함께 나누게 될 식탁의 사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육의 양식을 채우듯 성서일기와 코이노니아 시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차곡차곡 채워가던 시간들.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세워져 갔는지 모릅니다. 더욱 마음을 열고 준비를 해서인지 몰라도 말씀이 더욱 힘 있게 생각과 삶의 모양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하는 강강수월래는 진짜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진귀한 풍경이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둥글게 손을 잡고 땀 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눈시울을 적셨던 적이 있습니다. 신나게 놀이를 한 후 서로 포옹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마워서, 미안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일 예배 때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한 식구임을 다시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다짐을 해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

이제 공동체생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시간지만 또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얼마나 큰 기쁨으로 우리를 꽉 채워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의 삶이 가득 넘치는 여름공동체생활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15 380 / 285

기도 :

성경 : 역대하 34장

제목 : 요시아의 신앙적 영향

1-3 요시아에 대한 평가

해석: 집중해서 요시아의 내용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적용: 하나님, 조상의 약속을 따르는 삶을 살자. 궁금증을 갖자.

3-18 요시아의 신앙 개혁 업적

해석: 신앙생활의 성장 순서 (하나님 인정, 우상 버리기, 교회 봉사, 말씀보기)

적용: 성장하는 신앙을 위해 노력하자.

19-28 요시아의 회개

해석: 율법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신과 민족을 돌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적용: 성경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자.

29-33 요시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

해석: 자기가 아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적용: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삶을 살자.

발자국 소리가 음악이 되는 신비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해가 빛나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와 구별되는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되겠지.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중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길들인다’는 걸 서로에게 시간을 쏟으며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라고 말한다.

우리 집 강아지 ‘여름이’와 나의 첫 만남은 사실 엉망이었다. 처음에 강아지를 워낙 싫어해서 마음에 들지도 않고, 모질게 대하거나 때리며 미워하기까지 했으니까. 결국 아내가 평택으로 발령 나면서 데려갔는데, 앞집에서 강아지 소리가 육아에 방해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시 맡게 되었다. 그렇게 의정부 집에서 원치 않던 여름이와의 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다. 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녀석이 어느새 나를 진짜 아빠처럼 따르는 거다. 모질었던 내 마음도 녀석의 따뜻한 체온에 싹 녹아내렸다. 이제는 퇴근길 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쫓르르 달려 나오고, 눈빛이나 작은 소리만 들어도 뭘 원하는지 척척 통하는 사이가 됐다. 무심했던 내가 여름이에게, 여름이가 나에게 완벽히 ‘길들여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꼭 거창한 신앙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문득 삶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이 어렴풋이 느껴질 때가 있다. 여름이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듯, 나도 모르게 주님 뜻에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지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조금씩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 아닐까.

솔직히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허물 많고 부끄러운 모습뿐이라 거창한 고백을 하기도 민망하다. 하지만 미워했던 여름이가 이제는 소중한 기쁨이 되었듯이, 주님께서도 부족한 나를 인내와 따뜻한 눈빛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리라 믿는다.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조금씩 길들여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본다.

새썩사랑방 석용범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예배의 찬송

*기원의 기도

*기원찬송

시 편 23 : 1-6

36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요한복음 8 : 11b

289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 교

사도행전 15 : 1-35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28)

“ 공동체,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

사도행전 15 : 1-35

설교자

비움사랑방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봉헌기도

*영광찬송

*위탁의 말씀

*강복기도

288

288(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용신 진정행 / 봉헌위원 : 최창수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여름 공동체생활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지체들과 함께 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멘.

공동체,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초기 교회의 갈등과 논쟁. 안디옥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초기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중의 하나가 율법을 고집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할례와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교회는 논쟁과 갈등이 심했습니다.<1-5> 이 일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총회)를 가졌습니다. 회의는 베드로가 발언하고 야고보가 제안하여,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고 정결한 생활만을 권면하자는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6-21> 그리고 대표를 뽑아 안디옥교회에 편지를 보내 위로하였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22-31>

공동체,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예루살렘 총회는 '오직 믿음'의 신학을 확립하고, 기독교를 세계의 종교가 되게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후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름 공동체생활, 열린 마음을 더 하십시오. 교회의 교회사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어울려 사는 삶입니다. 여름 공동체생활에서 각자 열린 마음을 더하며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서병욱 집사